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보고서: 미국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신흥국 연쇄 외환위기

작성일: 2025-07-23

목차

- 보고서 요약
-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 발생 배경: 잠재된 인플레이션 압력과 시장의 낙관론
 - 단계별 파급 경로: 충격의 연쇄 반응
 - 시나리오 정의
- 핵심 모니터링 시장 지표
 - 지표 선정 근거 및 분석
 - 시각화: 시나리오 트리거 메커니즘
 - 모니터링 지표 상세
- 조기경보 뉴스 키워드
 - 단계별 키워드 감지 전략
 - 키워드 목록
-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 연관성 분석
 - 연계 정보 상세
- 신흥은행 영향 분석
 - 수익성(Profitability) 충격
 - 유동성(Liquidity) 충격
 - 시각화: 리스크 영역별 영향 수준
 - 핵심 관리지표 영향 분석
- 종합 결론 및 대응 권고
 -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
 - 선제적 대응 권고안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시장의 완화적 기대감(금리 인하)과 달리, 미국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연준(Fed)이 예상 밖의 긴축 기조로 급선회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로 인한 '강달러' 및 '고금리' 충격이 대외 부채가 많은 신흥국부터 연쇄적인 외환위기를 촉발하고, 그 파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신흥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나리오는 미국 물가 지표의 예상 밖 급등에서 시작하여, 미국 국채 금리 및 달러화 가치 폭등, 신흥국 자본 유출 및 통화가치 폭락,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은행의 외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연쇄적 파급 경로를 상정합니다. 각 단계별 핵심 모니터링 지표와 뉴스 키워

드를 정의하고, 신한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외화 LCR 등 핵심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수준을 '심각(Level 4)'으로 평가하고, 포트폴리오 조정, 비상 자금조달 계획 점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권고합니다.

2.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본 시나리오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역행적 충격(Contrarian Shock)'을 가정합니다. 이는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 시 파급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은 시장의 기대를 배반하는 미국의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입니다.

2.1. 발생 배경: 잠재된 인플레이션 압력과 시장의 낙관론

2025년 중반,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순조롭게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산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잠복해 있습니다.

- **끈적한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는 안정되었으나,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 외식비 등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 **견조한 고용 시장:** 낮은 실업률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 압력은 가계의 구매력을 지지하며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혹은 악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중동, 동유럽 등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IMF 블로그](#)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불균형적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기저효과 소멸:** 과거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도한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는 기대의 급격한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의 '패닉'을 유발하는 방아쇠(Trigger)가 될 수 있습니다.

2.2. 단계별 파급 경로: 충격의 연쇄 반응

충격은 미국 내부에서 시작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쳐 신흥국 실물경제와 국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명확한 경로를 따릅니다.

1단계 (초기 충격 - Trigger):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유사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발생합니다. 이에 연준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매파적(hawkish) 발언을 쏟아냅니다. 시장에 만연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속도로 소멸하고,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금융시장 전이 - Transmission): 자금의 대이동 (The Great Rotation to Safety)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자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간에 폭등하며(예: 10년물 4.75% 돌파), 이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점(benchmark)을 재설정합니다. 달러는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부상하며 달러 인덱스(DXY)가 급등합니다. [IMF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는 신흥국 통화 약세의 핵심 동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금은 주식,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을 급격

히 처분하고 미국 단기 국채 등 초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Risk-off)' 현상이 나타납니다.

3단계 (신흥국 위기 확산- Contagion): 연쇄적 외환위기

달러 강세와 급격한 자본 유출은 대외 부채 비중이 높고 외환보유고가 취약한 신흥국에 직격탄이 됩니다. 특히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 고질적인 재정·경상수지 적자 국가부터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합니다. 이들 국가는 외채 상환 부담 급증과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에 직면하며,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유사한 패턴의 위기가 가시화됩니다. [외교협회\(CFR\)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가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고, 무역 및 금융 채널을 통해 다른 신흥국으로 빠르게 전염(Contagion)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4단계 (국내 영향 및 시스템 리스크 - Impact): 대한민국 시장으로의 파급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는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 급등하고,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특히 신흥국 익스포저가 높은 국내 은행 및 기업의 자산 부실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 비용(조달 스프레드)이 급등하고, 단기 외화자금 시장이 마비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3. 시나리오 정의

위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여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정보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예: `Scenarios.xlsx`)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SC031	미국 인플레이션 재점화 와 신흥국 연쇄 외환 위기	US Inflation Re-ignition & Serial EM Currency Crisis: Unexpectedly persistent US inflation forces the Fed to reverse its dovish stance, leading to a surge in the US dollar and Treasury yields. This triggers massive capital outflows and a cascading currency crisis in vulnerable emerging markets, causing global financial instability.

3. 핵심 모니터링 시장 지표

본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시장 지표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각 지표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1. 지표 선정 근거 및 분석

-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PCE CYOY Index):**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상승 반전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Threshold_High(3.2%)**는 연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으로, 이 지점을 넘어서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급격히 후퇴할 것입니다.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USGG10YR Index):**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로서, 시장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 통화정책 기대를 모두 반영합니다. 금리가 **Threshold_High(4.75%)**를 돌파하는 것은 'Higher for Longer'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 세계 위험자산의 가치 하락을 압박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 **달러 인덱스 (DXY Curncy):** 글로벌 자금의 위험회피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DXY가 **Threshold_High(108.0)**를 상향 돌파할 경우, 신흥국 통화의 약세 압력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JP모건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 (JPM EMBI Global Div):** 신흥국 채권이 미국 국채에 비해 얼마나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스프레드가 **Threshold_High(400bp)**를 넘어 급격히 확대된다는 것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으며,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MSCI 신흥국 통화 지수 (MSCI EM Currency Index):** 다수 신흥국 통화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Threshold_Low(1600)** 아래로 급락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신흥국 전반의 동반 위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CBOE 변동성 지수 (VIX Index):** '공포 지수'로 불리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측정합니다. VIX가 **Threshold_High(25.0)** 이상으로 치솟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극심한 불확실성과 패닉 상태에 빠져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비이성적인 투매와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2. 시각화: 시나리오 트리거 메커니즘

아래 차트는 본 시나리오의 핵심 트리거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상과 달리 근원 PCE 물가(파란색 선)가 재상승할 경우, 시장이 기대하던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점선)가 무효화되고, 오히려 추가 긴축을 반영하는 새로운 금리 경로(붉은색 선)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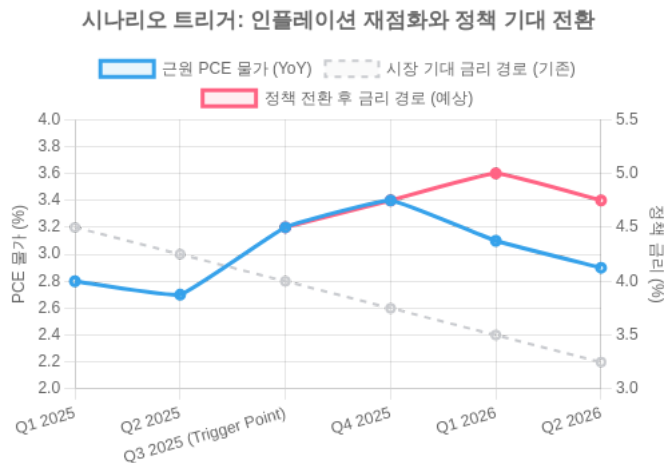


차트 설명: 파란색 실선은 근원 PCE 물가 추이, 회색 점선은 시장의 기존 금리 인하 기대 경로, 붉은색 실선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 예상되는 연준의 매파적 정책 전환 경로를 나타냅니다. 'Trigger Point'는 물가 지표가 예상을 깨고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3.3. 모니터링 지표 상세

아래 표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예: Indicators.xlsx)에 입력될 각 지표의 상세 정보입니다. 'Probability'는 현재 값과 임계치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지표가 단독으로 임계치를 돌파할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nt_Value
IND035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YoY)	PCE CY0Y Index	1D	2.8%	3.2%	0.8		2.9%
IND03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USGG10YR Index	60min	4.50%	4.75%	2.5		4.45%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nt_Value
IND037	달러 인덱스	DXY Curncy	60min	106.0	108.0	1.5		105.5
IND038	JP모건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	JPM EMBI Global Div	1D	350bp	400bp	4.2		330bp
IND039	MSCI 신흥국 통화 지수	MSCI EM Currency Index	1D	1650	1600	2.1		1680
IND040	CBOE 변동성 지수 (VIX)	VIX Index	60min	18.0	25.0	15.5		14.5

4. 조기경보 뉴스 키워드

정량적 지표와 더불어, 시장의 심리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 즉 뉴스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뉴스 키워드 모니터링은 시나리오의 초기 징후를 포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1. 단계별 키워드 감지 전략

키워드 모니터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이는 경보의 수준을 차별화하여 보다 정교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Yellow Phase (사전 감지):**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발생하기 전, 배경이 무르익고 있음을 암시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해당됩니다. 이 단계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감지될 경우, 관련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적인 분석에 착수해야 합니다.
- Red Phase (임박 경보):**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입니다. 자본 유출, 통화 위기, 시장 패닉 등 실제적인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키워드들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전에 수립된 위기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실행해야 합니다.

4.2. 키워드 목록

아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예: News_Keywords.xlsx)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키워드 목록입니다. 각 키워드는 특정 지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나리오와의 관련성에 따라 가중치(Weight)가 부여됩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 (0-1)
SC031	IND035	sticky inflation, wage pressure, services inflation	Yellow	0.8
SC031	IND035	upside surprise, inflation reacceleration, persistent price pressure	Yellow	0.9
SC031	IND036	Fed hawk, higher for longer, delay rate cut	Yellow	0.7
SC031	IND036	bond market selloff, yield surge, additional tightening	Red	0.9
SC031	IND038	capital flight, emerging market outflow, sudden stop	Red	0.9
SC031	IND039	currency crisis, IMF bailout, debt default	Red	1.0
SC031	IND040	risk-off, market panic, credit crunch	Red	0.8

5.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시나리오와 각 모니터링 지표 간의 정량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리스크 모델링과 종합적인 위험 수준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5.1. 연관성 분석

- Weight (연관 강도):** 특정 지표가 시나리오의 전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미국 PCE 물가(IND035)와 10년물 금리(IND036)는 시나리오의 시발점이므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집니다.
- Correlation_Coeff (상관계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시나리오의 심각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MSCI 신흥국 통화 지수(IND039)는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 Volatility_Impact (변동성 영향):** 시나리오 발생 시 해당 지표의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얼마나 증폭될지를 예상한 값입니다. VIX 지수(IND040)나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IND038)와 같이 시장의 공포를 직접 반영하는 지표들은 변동성이 극심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 연계 정보 상세

이 데이터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예: Scenario_Indicator_Link.xlsx)에서 시나리오 기반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의 파라미터로 활용됩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Correlation_Coeff	Volatility_Impact(%)
SC031	IND035	0.90	0.75	3.0
SC031	IND036	0.95	0.85	5.5
SC031	IND037	0.95	0.80	4.0
SC031	IND038	0.85	0.65	10.0
SC031	IND039	0.80	-0.70	8.5
SC031	IND040	0.75	0.60	25.0

6. 신한은행 영향 분석

거시경제 시나리오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 당행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본 시나리오가 신한은행의 핵심 수익성 및 유동성 지표에 미칠 충격을 분석합니다.

6.1. 수익성(Profitability) 충격

수익성 악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첫째, 외화 조달 비용의 급등과 대출 자산의 부실화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축소입니다. 둘째, 신흥국 익스포저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용 손실입니다.

- 순이자마진(NIM) 하락:** 글로벌 신용경색은 은행의 외화 조달 스프레드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원화 대출 금리에 즉각적으로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대마진, 특히 외화 부문의 마진을 크게 훼손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운용 자산의 수익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 부실채권(NPL) 비율 상승:** 신흥국 현지 법인이나 지점이 보유한 대출 채권, 혹은 국내 기업 중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통화 가치가 폭락한 국가의 기업들은 달러 표시 부채 상환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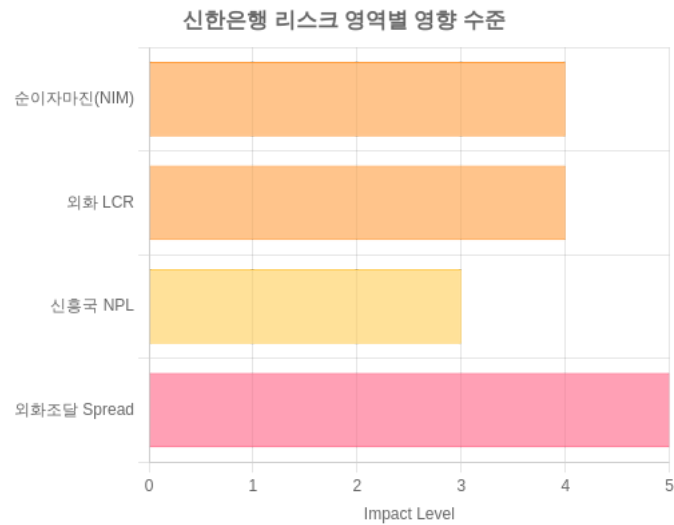
6.2. 유동성(Liquidity) 충격

본 시나리오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은 외화 유동성입니다. '달러 가뭄' 현상은 은행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급락:**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회수하면서 단기 외화 자금 시장이 경색됩니다. 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고유동성 외화자산(예: 미국 국채)을 매각해야 하므로, LCR 비율이 규제 기준 이하로 급락할 위험에 처합니다.
- **외화자금조달 가산금리(Spread) 폭등:** 시장에 달러가 마르면서, 신규로 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필요한 자금을 아예 구하지 못하는 '자금 조달 실패(Funding Failure)'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달러 편당에 대한 의존이 신흥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취약점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6.3. 시각화: 리스크 영역별 영향 수준

아래 차트는 본 시나리오가 신한은행의 주요 리스크 관리 지표에 미치는 충격의 수준(1~5단계)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외화자금조달 비용(Spread)에 대한 충격이 가장 심각(5단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pact Level 정의: 1단계(경미)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 5단계(위기)

6.4. 핵심 관리지표 영향 분석

아래 표는 신한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예: Bank_RiskMetrics.xlsx)에 해당하며, 각 지표별 충격 수준을 정량적으로 나타냅니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BM001	순이자마진 (NIM, %)	1.55%	1.52%	1.40%	4
BM00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110%	105%	90%	4
BM003	신흥국 익스포저 부실채권 (NPL) 비율 (%)	0.8%	0.9%	2.0%	3
BM004	외화자금조달 가산금리 (Spread, bp)	50bp	65bp	100bp	5

7. 종합 결론 및 대응 권고

본 시나리오는 발생 확률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으며, 발생 시 당행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고 수준의 경계와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7.1.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리스크 수준

- 종합 발생 가능성 (Overall Probability): **38.5 %**

(산출 근거: 각 지표별 발생 확률(Probability)과 시나리오 연계 가중치(Weight)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산출. 특히 연관성이 높은 미국 금리/물가 지표(IND035, IND036)의 가중치를 높게 반영함. $\sum(Probability_i * Weight_i) / \sum(Weight_i)$)

- 종합 리스크 수준 (Overall Risk Level): **4단계 (심각)**

(산출 근거: 30%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외화 유동성 및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위기(Level 5)' 수준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리스크 수준을 '심각' 단계로 평가함.)

7.2. 선제적 대응 권고안

'심각' 수준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권고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Portfolio Management)

- 취약 신흥국 익스포저 재점검 및 축소: Reuters 등이 지목한 고위험 국가(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현재 수준에서 하향 조정하고, 시장 충격이 덜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축소(sell-down)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규 취급은 원칙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 헷지 전략 강화 및 안전자산 비중 확대: 신흥국 통화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헷지(hedge)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 내 미국 국채, 금 등 고품질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순이자마진(NIM) 방어 (NIM Defense)

- 금리 리스크 전가 능력 점검: 외화 조달 비용 급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부 외화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repricing cycle)를 점검하고, 조달 비용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신속하게 전가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 스왑(IRS) 등을 통한 헷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비이자이익 창출 능력 강화: 이자이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수수료 기반의 비이자이익이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합니다. IB, WM, 외환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부문의 수익 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다변화 (Funding Diversification)

- 비상 외화자금 조달 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즉시 가동 및 점검: 현재의 CFP를 본 시나리오에 맞춰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국 중앙

은행과의 통화 스왑 라인, 글로벌 은행과의 신용공여 라인 등 비상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조달 수단을 재확인하고 실제 인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 조달 구조의 질적 개선: 단기성 외화 차입금(예: CP, 단기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만기가 긴 커미티드 라인(Committed Line)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구조를 장기화·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달러화에 편중된 조달 통화를 엔, 유로 등 다른 기축통화로 다변화하여 특정 통화의 유동성 경색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조기경보 체계 강화 (Early Warning System Enhancement)

1. 핵심 지표 및 키워드 집중 모니터링: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핵심 시장 지표 (IND035 ~ IND040) 및 뉴스 키워드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현재의 '주간/월간'에서 '일일 (Daily)' 단위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임계치(Threshold)에 근접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 모니터링도 고려해야 합니다.

2. 비상대응팀(Contingency Team) 가동 체계 구축: 모니터링 지표가 'Yellow Phase'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관련 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Red Phase' 임계치 도달 시에는 즉각적으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전에 구성된 비상대응팀을 가동하는 명확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1] 1.indicators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0_fd2306e023350736e627e825c8bcef61.xlsx
- [2] [PDF] Bloomberg EM Local Currency Government 10% Country Capped ...
https://assets.bbhub.io/professional/sites/27/Bloomberg_Methodology_22850.pdf
- [3] [PDF] Bloomberg Global Equity Indices Methodology
<https://assets.bbhub.io/professional/sites/10/Bloomberg-Global-Equity-Indices-Methodology.pdf>
- [4] 5.news_keywords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4_c270a919b8faefe0fe66ddab26cf64d0.xlsx
- [5] Emerging Markets Navigate Global Interest Rate Volatility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4/01/31/emerging-markets-navigate-global-interest-rate-volatility>
- [6] ICE BofA Emerging Markets Corporate Plus Index Option-Adjusted ...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AMLEMCBPIOAS>
- [7] 4.scenario_indicator_link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3_2ddf1c15505bfd578b7a5296d983313f.xlsx
- [8] Food Price Outlook - Summary Findings |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food-price-outlook/summary-findings>